

##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신 혜 숙\* · 김 미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 때 TV홈쇼핑을 통한 이민 상품 판매가 많은 이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 단 시간 내에 매진된 경우를 보거나 근래 은퇴 이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듯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민은 생소한 일이거나 전혀 낯의 일 만은 아니다. 이렇듯 이민은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의 또 다른 한 삶의 형태일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해외 이민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이미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문화 간호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외교통상부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총 6,638,338명인데, 이들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2,109,702명, 중국이 2,517,209명, 일본이 403,230명으로서 전체 재외 동포수의 31.8%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수적인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 중의 하나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민생활은 적응해야할 많은 외적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

로서(Hovey, 2000; Lee, Sobal, & Frongillo, 2000), 이민과정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에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Meadows, Thurston, & Melton, 2001).

이처럼 이민과정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는 건강과 관련이 된다는 연구들(Meadows, Thurston, & Melton, 2001; Ritsner, Ponizovsky, Nechamkin, & Modail, 200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재미동포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재미 한인들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문화변용(문화적응, 문화접변)은 이민이라는 문화적 차이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Gutmann, 1999; Hovey, 2000; Yoon, 2003), 문화변용은 중요한 건강이슈의 하나이다(Lee et al., 2000).

아시아계 이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변용에 대한 소수 연구(Lieber, Chin, Nihira, & Mink, 2001; Liem, Lim, & Liem, 2000; Salant & Lauderdale, 2003; Satia et al., 2000)가 있으나 미국 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뜻하며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언어적 장애, 문화적 충격, 그리고 이민에 대한 성취나 기대사이에서의 불일치와 같은 요인에 의해 가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ry, Kim, Minde, & Mok,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 미국 Johns Hopkins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1987; Turner & Avison, 2003; Wilmoth & Chen, 2003).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시키고 개인의 건강행동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재미한인들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파악은 그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Leininger(1978)는 간호사에 있어서 문화사정(culturological assessment)을 하는 것은 생리적이나 신체적인 간호사정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재미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변용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변용의 정도는 현재 이민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으로 이와 관련지어 현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호 차원에서 이민집단에서 경험하는 문화변용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최근 1주 동안에 그들이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스트레스(current perception of stress)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변용으로의 적응이 현재의 일상생활스트레스 경험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향후 이민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이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미국이민 한국인의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new society)의 현실과 사회, 문화, 경제적

규모에의 적응과 경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스트레스원의 총합(sum)이라고 정의되며 (Mena, Padilla, & Maldonado, 1987), 본 연구에서는 Salgado de Synder(1986)가 개발한 측정도구 (acculturative stress: 12항목)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 일상생활 스트레스(current perception of stress) : 지난 한 주 동안 겪어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Linn(1985-1986)이 개발한 측정도구(GARS: 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8항목)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미국 이민 한국인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문화간호란 문화 또는 하위문화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가치, 신념, 행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집단의 돌봄요구를 이해하고 돕는 간호로서 대상자의 총체적 간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문화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문화관점이나 지식, 경험이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하다(Leininger, 1978).

문화와 간호에 대한 연구는 여러 민족이 섞여있는 미국에서 문화인류학 이론, 민족과학 이론, 근거이론 등을 기반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Leininger(1978)는 미국내 소수 민족의 건강행위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문화간호이론을 구축하였고, 문화사정(culturologic assessment)은 앞으로 전문간호사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영역이며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용어는 최초로 인류학자인 Richard Thurnwald(1932)에 의해 그의 저서의 제목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Gutmann, 1999), Bowler(1993)은 문화변용을 문화인지훈련(cultural awareness training)이라고 표현하였다.

문화변용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거나 그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문화변용은 문화접촉(culture contact)으로도 영국의 연구자들은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화접촉은 두 문화 또는 그 이상의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짧거나 긴 기간동안의 즉흥적이거나

계획적인 만남을 뜻한다(Leininger, 1978).

문화변용(accluturation)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응, 문화접 변으로도 불리우며, 두 문화가 접촉하여 서로의 유사성이 증가해 가는 변화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1999), 미국 이민의 경우 문화변용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이민 후 미국문화로의 동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 말하는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인지, 판단, 의사소통 및 제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화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이루고 가족이나 학교, 건강관리체계와 같은 제도의 기초를 이룬다(Berry, 1997; Lee et al., 2000).

그 외 Ebin 등(2001)은 문화변용이란 기득권 사회(host society)로의 적응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대상자가 새로운 상황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거나 가능할 수 없을 때 문화변동과 문화변용에서의 문화충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Leininger, 1978).

문화충격(cultural shock)이란 용어는 문화적 실제, 가치 그리고 신념의 차이 때문에 상이한 문화 집단들을 이해하거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방인이 경험하는 무력감과 불안의 감정과 방향 감각 상실상태를 말하며, 문화적 충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Leininger, 1978).

어떤 개인은 새로운 문화에 안주하려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갑작스런 문화변화를 경험하는데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점차적인 문화변용을 경험한다고 하였다(Leininger, 1978).

문화변용 과정(accluturation process)의 model(cross-cultural psychology)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John Berry와 그의 동료들(1987)에 의해 소개된 4가지 유형의 문화변용 오리엔테이션(accluturation orientaion)으로 동화, 분리, 통합, 적응(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marginalization)이다.

Aroian(1990)은 이민자는 환경과 생활양식의 주된 변화에 직면하여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국민들보다 정서적인 스트레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과 Berry(1986)는 캐나다계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유형을 5가지(신체적 변화, 생물학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문화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혔으며, 외로움, 우울, 불안은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였다.

Laffret(1989)은 건강요구조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집단 중의 하나인 이민 역사가 짧은 대상자들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높은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문화변용 스트레스(accluturative stress)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문제와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또한 잘 문화변용된 개인들은 더 좋은 건강을 지님을 제시한 바도 있다(Berry & Kim, 1988; Lee et al., 2000).

Hovey(2000)는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자는 우울과 자살적 사고의 가능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언어적 장애, 문화적 충격, 그리고 이민에 대한 성취나 기대사이에서의 불일치와 같은 요인에 의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ry et al., 1987; Turner & Avison, 2003; Wilmoth & Chen, 2003).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요인(예를 들면 여성, 노인,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SES])들이 이민자들에게 디스트레스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Gresenz, Sturm, & Tang, 2001; Williams, 2002).

Salant와 Larderdale(2003)은 문화와 건강과의 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의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단편적이긴 하나 어떻게 문화변용을 사정하고 어떻게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제시하면서 건강에 있어서 문화변용의 영향(accluturation's effect)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대상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간호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간호가 대상자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문화권내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이민생활은 적응해야 할 많은 외적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이나, 이들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즉, 새로운 문화에 접촉되어 살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의 문화변용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ee et al., 2000; Liem et al., 2000).

결론적으로 이민 집단은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문화변용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이러한 과정은 건강과 관련됨으로 건강문제를 고려한 이민 집단의 건강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해서도 문화변용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최근 들어 이민집단을 중심으로 문화변용과 건강과의 관련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이민 한인 대상을 중심으로 한 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도는 이민이라는 문화권내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미국 이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에 불과하며, 기존 연구와의 비교가 부

족하여 차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본 연구결과의 보완이 좀 더 요구된다고 본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재미 한인 지역사회에서 임의로 선별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 이민 한국인 성인 남녀 154명으로, 18세 이상인 자로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혈통(한국부모로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대상자)을 지닌 자들로서 본 연구의 참여를 승낙한 자들이다.

#### 3. 연구도구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Salgado de Synder(1986)가 개발한 것으로, 그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Mexican 이민 여성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변용 스트레스 도구(12항목)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언어적 장애, 이민생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갈등, 문화변용과정 때문에 오는 문화적 가치와 역할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4-point likert-type scale)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정말 그렇다)으로 총 12문항으로 1-36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스트레스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Salgado de Synder(1986)의 연구(N=140)에서는 Cronbach alpha가 .6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일상생활스트레스(current perception of stress) : 일상생활스트레스는 Linn(1985-1986)이 개발한 도구(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8문항) 의해 측정된 최근 한 주 동안 겪어온 스트레스 혹은 압박감의 정도를 측정된 점수이다. 도구는 일/ 직장/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개인적 생활의 갑작스런 변화(사망, 출생, 결혼, 이혼 등),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상해, 사고, 지진, 홍수 등), 일상생활의 변화 없음 또는 단조로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10점 척도(0-9점)의 시각적 상사척도에 의해 전혀없다(0)에

서 극도로 심하다(9)까지의 직선에 표시한 곳을 점수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Linn(1985-1986)의 따르면 각 항목당 신뢰도의 범위가 .69 to .92 이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Cronbach's alpha .84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기관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시도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교회, 한인마켓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수락한 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관한 정보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집 검토한 후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정보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질문하여 작성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MR(Duncan's Multiple Range)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154명 중 여성이 98명(63.6%)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18-82세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3.6(± 13.7)세로 31-50세가 55.8%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80.1%가 기혼자로, 연구대상자의 2/3 이상의 남성(83.6%, N=46)과 여성(78.1%, N=75)이 배우자와 살고 있는 상태였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전체 대상자중 과반수 이상인 94명(62.3%)이 대학 및 대학교 졸업 이상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4)

특성	구분	계(n=154)		남성(n=56)		여성(n=98)	
		N	(%)	N	(%)	N	(%)
연령	<=30	21	(13.6)	10	(17.9)	11	(11.2)
	31 40	55	(35.7)	18	(32.1)	37	(37.8)
	41 50	31	(20.1)	7	(12.5)	24	(24.5)
	51 60	27	(17.5)	15	(26.8)	12	(12.2)
	>= 61	20	(13.0)	6	(10.7)	14	(14.3)
학력	초등졸	9	( 6.0)			9	( 9.4)
	중고등졸	48	(31.8)	14	(25.5)	34	(35.4)
	대학졸	69	(45.7)	31	(56.4)	38	(39.6)
	대학원졸	25	(16.6)	10	(18.2)	15	(15.6)
결혼상태	기혼	121	(80.1)	46	(83.6)	75	(78.1)
	미혼	15	( 9.9)	6	(10.9)	9	( 9.4)
	기타	15	( 9.9)	3	( 5.5)	12	(12.5)
직업	사무직	54	(35.3)	20	(35.7)	34	(35.1)
	근로직	61	(39.9)	33	(58.9)	28	(28.9)
	없음	38	(24.8)	3	( 5.4)	35	(36.1)
수입안정성	매우 불안정	14	( 9.2)	7	(12.5)	7	( 7.2)
	불안정	41	(26.8)	18	(32.1)	23	(23.7)
	안정적	67	(43.8)	21	(37.5)	46	(47.4)
	매우 안정적	31	(20.3)	10	(17.9)	21	(21.6)
가족원수	1	8	( 5.2)	1	( 1.8)	7	( 7.1)
	2 3	44	(28.6)	14	(25.0)	30	(30.6)
	4	60	(39.0)	24	(42.9)	36	(36.7)
	>= 5	42	(27.3)	17	(30.4)	25	(25.5)
	주거형태	자신의 집	102	(66.2)	32	(57.1)	70
	아파트 렌트	41	(26.6)	22	(39.3)	19	(19.4)
	일반주택렌트	9	( 5.8)	2	( 3.6)	7	( 7.1)
	기타	2	( 1.3)	.	.	2	( 2.0)
이사횟수(이민후)	없음	11	( 7.1)	2	( 3.6)	9	( 9.2)
	1 2	41	(26.6)	16	(28.6)	25	(25.5)
	3 4	53	(34.4)	19	(33.9)	34	(34.7)
	>=5	49	(31.8)	19	(33.9)	30	(30.6)
고국으로 귀환 의사	반드시 귀환	13	( 8.7)	8	(14.5)	5	( 5.3)
	기회가 되면	31	(20.8)	13	(23.6)	18	(19.1)
	잘 모르겠다	28	(18.8)	6	(10.9)	22	(23.4)
	생각해 본적 없음	49	(32.9)	19	(34.5)	30	(31.9)
	원하지 않음	28	(18.8)	9	(16.4)	19	(20.2)

이었다. 이는 성별에서도 남성(74.6%, N=41)은 연구대상자의 2/3 이상이며, 여성(55.2%, N=53)은 연구대상자의 1/2정도를 차지하였다. 미국 이민 한국인의 직업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두개(사무직과 근로직)로 분류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근로직(39.9%), 사무직(35.3%), 없는 경우(24.8%) 순이었으며, 성별에 있어서 주된 직업형태는 남성은 근로직(58.9%), 여성은 전업주부(36.1%)였다. 한편 경제적 상태를 사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 스스로가 지각한 수입 안정성에 대한 질문의 반응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 생각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64.1%를 차지하였

으며, 특히 대상자의 20.3%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반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원은 4인(전통적인 형태 :남편, 아내, 두자녀)(39%, N=60), 2-3인(28.6%), 5인 이상(27.3%)순이었다. 주거 형태는 자신의 소유 주택 거주(66.2%), 아파트 렌트(26.6%), 일반주택 렌트(5.8%)순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이민 온 후에 이사회 횟수는 평균 3.8회로서 3회 이상이 66.2%로 미국이민 온 후로 3-4회 이상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다. 고국으로 귀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와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가 대상자의 약 과반수(51.7%)를 차지하였

며, 반면에 “반드시 혹은 기회가 되면 고국으로 귀환하길 원한다”는 경우가 29.5%, “잘 모르겠다”가 18.8%이었다.

## 2.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문화변용 스트레스 정도는 17.17(범위 3-31)점이었고,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는 26.56(범위 0-60)점이었다.

<Table 2>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 (n=154)

	Mean (I.N)	SD	범위	
			최소	최대
문화변용	17.17 (1.43)	5.37	3.00	31.00
일상생활스트레스	26.56 (3.32)	12.85	0.00	60.00

## 3.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와의 관계

본 연구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360$ ,  $p<.01$ ). 따라서 문화변용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도 높음을 나타내었다.

<Table 3>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와의 상관성 (n=154)

연구변수	문화변용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	.360(**)

\*\*  $p<.01$

##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 1) 일반적 특성별 문화변용 스트레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정도, 직업, 지각된 수입 안정성,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 한국인의 교육정도에 따른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원 이상 졸업자군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자군과 나머지 군이 더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2.709$ ,  $p=.047$ ).

미국이민 한국인의 직업에 따른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차이는 사무직과 직업이 없는 군에 비해 근로직 직업을 지닌 군에서 더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16.202$ ,  $p=.000$ ). 미국이민 한국인의 지각된 수입 안정성에 따른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입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군에 비해 덜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하게 생각하는 군에서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26.666$ ,  $p=.000$ ).

미국이민 한국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의 주택을 지닌 주거형태군이 렌트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는 군에 비해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낮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2.672$ ,  $p=.050$ ).

### 2) 일반적 특성별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

미국이민 한국인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지각된 수입 안정성,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한 결과 30대 이하의 군이 60대 이상의 군과 나머지 연령군에 비해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7.380$ ,  $p=.000$ ).

미국이민 한국인의 결혼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자인 군이나 기타 군에 비해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는 군이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5.354$ ,  $p=.006$ ).

미국이민 한국인의 수입 안정성에 따른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입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군에 비해 덜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하게 생각하는 군에서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12.738$ ,  $p=.000$ ).

미국이민 한국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주거형태군과 기타 주거형태군이 렌트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는 군에 비해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가 낮은 것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4.207$ ,  $p=.007$ ).

##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에 기인한

<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일반적 특성	구분	N	(%)	문화변용				일상생활스트레스			
				mean	(SD)	F (p)	Duncan	mean	(SD)	F (p)	Duncan
연령	<=30	21	(13.6)	15.20	(5.23)	1.754		37.00	( 9.51)	7.380	C
	31 40	55	(35.7)	18.04	(5.06)	(.141)		28.47	(13.07)	(.000)	B
	41 50	31	(20.1)	17.19	(4.29)			24.52	(10.90)		AB
	51 60	27	(17.5)	18.11	(6.49)			22.30	(11.67)		AB
	>= 61	20	(13.0)	15.39	(5.81)			19.25	(12.47)		A
학력	초등 졸	9	( 6.0)	19.67	(4.18)	2.709	B	22.89	(18.03)	2.226	
	중고등 졸	48	(31.8)	18.29	(5.09)	(.047)	AB	27.69	(12.76)	(.088)	
	대학졸	69	(45.7)	16.69	(4.93)		AB	28.13	(12.28)		
	대학원졸	25	(16.6)	15.13	(6.90)		A	21.16	(11.73)		
결혼상태	기혼	121	(80.1)	17.42	(5.41)	1.566		25.63	(11.89)	5.354	A
	미혼	15	( 9.9)	14.86	(4.99)	(.212)		36.67	( 9.49)	(.006)	B
	기타	15	( 9.9)	17.87	(4.94)			25.80	(17.86)		A
직업	사무직	54	(35.3)	15.48	(4.95)	16.202	A	28.26	(11.43)	2.960	
	근로직	61	(39.9)	19.98	(4.40)	(.000)	B	27.89	(13.48)	(.055)	
수입 안정성	매우불안정	14	( 9.2)	24.07	(3.73)	26.666	B	38.71	(10.50)	12.738	C
	불안정	41	(26.8)	19.70	(3.25)	(.000)	AB	32.12	(11.99)	(.000)	B
	안정적	67	(43.8)	16.14	(4.70)		A	23.84	(12.16)		A
	매우 안정적	31	(20.3)	13.17	(4.66)		A	20.19	( 9.81)		A
가족원수	1	8	( 5.2)	17.14	(5.55)	.911		32.75	(15.53)	.872	
	2 3	44	(28.6)	16.02	(5.73)	(.437)		24.95	(12.68)	(.457)	
	4	60	(39.0)	17.51	(5.21)			27.02	(12.09)		
	>= 5	42	(27.3)	17.83	(5.23)			26.40	(13.63)		
	주거형태	자신 집 소유	102	(66.2)	16.31	(5.61)	2.672	A	24.16	(11.64)	4.207
아파트 렌트		41	(26.6)	18.98	(4.29)	(.050)	AB	31.68	(13.09)	(.007)	B
일반집 렌트		9	( 5.8)	18.14	(5.76)		AB	31.67	(15.32)		B
기타		2	( 1.3)	19.50	(4.95)		C	21.00	(29.70)		A
이사횟수	0	11	( 7.1)	17.18	(3.49)	.764		25.00	(13.70)	1.532	
	1 2	41	(26.6)	17.59	(5.05)	(.516)		25.39	(13.32)	(.208)	
	3 4	53	(34.4)	16.27	(5.39)			24.81	(10.53)		
	>=5	49	(31.8)	17.80	(5.99)			29.78	(14.28)		
	고국 귀환 의사	반드시 귀환	13	( 8.7)	20.17	(4.24)	2.078		30.54	(15.04)	1.893
기회가 되면		31	(20.8)	18.29	(4.47)	(.087)		26.87	(13.18)	(.115)	
모르겠다.		28	(18.8)	17.19	(5.80)			31.11	(12.41)		
생각해 보지 않음		49	(32.9)	16.53	(5.25)			24.51	(12.12)		
	원하지 않음	28	(18.8)	15.58	(6.09)			23.61	(12.74)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민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종종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Berry, 1997; Ebin et al., 2001; Lee et al., 2000; Hovey, 2000).

예를 들면,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민자 집단에서 이민경험과 부정적인 건강결과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해왔다(Berry et al., 1987; Yeh & Inose, 2002).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변용 스트레스에 대한 본 연구결과도 기존 이민자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관계는 문화변용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을수록 일상생활스트레스도 더 높았다. 구체적인 기존 연구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제 이주(international migration)의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이민자의 생활 대부분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켰고, 거주환경의 변화는 전형적으로 생활 조건, 직업, 사회경제적인 위상, 언어 사용, 가족의 구성과 기능,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급격한 변화와 심리 사회적 환경의 혼란, 그리고 가족과

사회체계의 혼란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기타 장애에 쉽게 영향을 받는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Berry, 1997; Hovey, 2000; Shen & Takeuchi, 2001)의 보고와 유사하여 이민자의 문화변용이라는 과정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경험적 연구 중에서 멕시코인(Hovey & Magana, 2000; Salgado de Snyder, 1986), 중국인(Ying, 1988), 히스패닉(Rogler, Cortes, & Malgady, 1991), 일본인(Baron & Matsuyama, 1988), 그리고 한국인(Hurh & Kim, 1990; Noh & Kaspar, 2003; Shin, 1993) 등에서 다양한 이민자 집단에서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

Rogler 등(1991)은 이민자가 주된 문화집단(dominant cultural group)을 향해 맞추어 변화해 가는 과정인 문화변용은 새로운 문화체계에 노출되어있는 양에 따라 이민자들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신의 민족적 배경과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있어 위협요소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문화변용과 심리적 안정과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문화변용이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Cuellar 등(2004)의 멕시코 이민자들의 예를 들면, 커다란 문화변용은 더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즉, 우울 증상)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높은 문화적 저항(high cultural resistance: 문화변용이 보다 더디게 진행된 경우)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Escalante 등(2000)과 Mehta(1997)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도인들에서는 각각 보다 커다란 문화변용이 더 나은 정신건강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보다 덜 고착된 민족성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스트레스-건강(stress-health outcome)간의 이론은 Holmes와 Rahe(1966)의 스트레스적 생활 사건이 건강에 주는 영향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의 요인이 심리적인 안정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Kim(1988)은 한국인 여성 이민자를 치료한 토론토의 의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인 여성 이민자의 60% 이상이 문화변용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Folkman과 Moskowitz(2000)은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지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은 임상적 우울증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생리적인 스트레스의 결과 같은 보다 나쁜 결과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Folkman & Moskowitz, 2000).

즉, 이처럼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정도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민자 집단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건강간의 관련성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로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이민자 집단의 건강 결과와 관련하여 문화변용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며(Gomez, Kelsey, Glaser, Lee, & Sidney, 2004; Hovey & Margana, 2000; Truner & Avison, 2003), 문화변용이란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도구로 충분한 정확성이 제시된 결과들이라 설명하기 어려우며 개인적 문화변용과정의 복합적인 성질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관련성은 있었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변용 스트레스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정신건강의 예측원으로서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척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이민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의 속에는 문화변용 스트레스 측정은 문화변용 과정과 스트레스의 정서적 범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문화변용 스트레스 척도의 개념적 타당성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erry et al., 1987; Hovey, 2000; Kim & Berry, 1986; Lee et al., 2000; Liem et al., 2000). 그러므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변용 스트레스 척도의 구상이 요구되며 이민자 집단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문화변용과정에 대한 특수한 정서적 측면만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척도에 의존하기보다 광범위한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연구변수간(문화변용 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에는 연령, 직업, 결혼상태, 수입 안정성, 주거형태, 고국으로의 귀환할 의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의에서는 이중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여성으로 태어난 것, 노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이민자의 디스트레스와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resenz et al., 2001; Williams, 2002).

본 연구결과에서는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연령간에는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Padilla 등(1985)은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젊은 이민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이민자들에게서 더 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14세 이후에 이민한 사람들(late immigrants)이 14세 이전에 이민한 사람들(early immigrants)보다 더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후기 이민자들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 조절 전략, 우울증 경험여부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중재전략이 요구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상생활스트레스의 경우 젊은 연령군과 나이가 든 연령군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이민자들의 미국 체류기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미국 체류기간이나 이민 후 세대의 수가 문화변용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미국 체류기간을 독립된 변수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Shin(1993)는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미국 체류기간의 역관계를 보고하였고, Hurh와 Kim(1990)은 시카고에서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Hurh와 Kim(1990)은 체류기간과 심리적 안정은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이 이민 후 13년~15년이 지나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역방향적으로 정신건강상태와 연관되어져 왔다(Gresenz et al., 2001; Hay, 1988; Muramatsu, 2003). 이는 사회적 지위가 보다 낮은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에서의 사건들과 맞닥뜨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 보다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ohrenwend & Dohrenwend, 1969; Kessler & Cleary, 1980).

횡문화적 연구에서 연구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다 더 다양하다. Bengston(1979)에 의하면, 새 이민자 집단(한국계 미국인과 같은)의 경제적 순위는 그들의 새로운 이민 사회의 위상에 따라 거의 미리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횡문화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태의 영향과 민족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상태는 개인이 기대하는 목표와 실제 이루어낸 결과간에서 모순적인 개념을 나타낼 수 있기에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Green(1970)이 제안한 직업수준에 따른 계층적 지수는 직업 범주의 목록 중에서 '전문직' 이라고 분류된

목록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할당하였다. 그러나 모든 전문직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Green(1970)의 지수에 따른 낮은 명성도의 직업이 항상 저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대상 집단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 연구자들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 문화변용과정과 건강 결과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역할을 조사하지만 이민자들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을 편의 추출 하였기에 집단의 대표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둘째, 횡문화적으로 연구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이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이 역으로 해석되었거나 이전 연구 중 한국계 미국인 연구에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횡문화적 적합성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연구변수 측정을 위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기존연구와의 비교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문화변용 스트레스와의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특징을 밝히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또 다른 미국 이민 한국인의 대한 반복연구는 물론이고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미국 이민 한국인 성인 남녀 154명으로, 18세 이상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혈통을 지닌 자들을 대상으로 편의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Salgado de Synder(1986)의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12문항)도구와 Linn(1985-1986)이 개발한 일상생활스트레스(current perception of stress: 8문항)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PC+ 11.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DMR(Duncan's Multiple Ran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변용 스트레스 정도는 17.17점(최

- 대 3점에 1.43점),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는 26.56점(최대 9점에 3.32점)이다.
-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r=.360, p<.01$ )를 나타내었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교육정도( $F=2.709, p=.047$ ), 직업( $F=16.202, p=.000$ ), 지각된 수입 안정성( $F=26.666, p=.000$ ), 주거형태( $F=2.672, p=.05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는 연령( $F=7.380, p=.000$ ), 결혼상태( $F=5.354, p=.006$ ), 지각된 수입 안정성( $F=12.738, p=.000$ ), 주거형태( $F=4.207, p=.007$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자들의 제한점과 같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편의 추출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미국이민 한국인과 미국 이민 타국인과의 문화변용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여 문화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문화간호의 일환으로 문화변용관련 변수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roian, K. J., & Norris, A. (1990). A Mod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to migration and resettlement. *Nursing Research, 39*(1), 5-10.
- Baron, M. R., & Matsuyama, Y. (1988). Symptoms of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ese collage students. *J Soc Psychol, 128*(60), 803-816.
- Bengston, V. (1979). Ethnicity and aging. In D Gelfand & A Kutzick (eds.), *Ethnicity and aging*(pp. 9-3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Berry, J.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Dasen, P. R., Berry, J. W., Sartorius, N.(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207-238.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owler, I. (1993). They're not the same as us: Midwives Stereotypes of South Asian Descent Maternity Patients.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5*(2), 157-178.
- Cuellar, I., Bastida, E., & Braccio, S. M. (2004).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in an older Mexican-origin sample.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6*(4), 447-466.
- Dohrenwend, B. P., & Dohrenwend, B. S. (1969). *Social status and psychological disorder: A causal inquiry*. New York: Wiley.
- Escalante, A., Espionsea-Morales R., del Rincon I., Arroyo, R. A., & Older, S. A. (2000). Recipients of hip replacement for arthritis are less likely to be Hispanic, independent of access to health care and socioeconomic status. *Arthritis & Rheumatism, 43*(2), 390-399.
- Ebin, V. J., Sneed, C. D., Morisky, D. E., Rotheram-Borus, M., Magnusson, A. M., & Malotte, C. K. (2001). Acculturation and Interrelationships Between Problem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 62-72.
- Folkman, S., & Moskowitz, J.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47-654.
- Gomez, S. L., Kelsey, J. L., Glaser, S. L, Lee, M. M., & Sidney, S. (2004). Immigration and acculturation in relation to health and health-related risk factors among specific Asian subgroups in a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1), 1977-1984.
- Green, L. W. (1970). Manual for scoring socioeconomic status for research on health behavior. *Public Health Reports, 85*, 815-827.
- Gresenz, C. R., Sturm, R., & Tang, L., (2001).

- Income and mental health. Unraveling community and individual level relationships. *Journal of Mental Health Policy and Economics*, 4(4), 197-203.
- Gutmann, M. C. (1999). Ethnicity, Alcohol, and Accultur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8(2), 173-184.
- Hay, D. I. (1988).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health status: A study of males in the Canada health survey. *Social Science Medicine*, 27(12), 1317-1325.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exic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134-151
- Hovey, J. D., & Magana, C.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 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119-131.
- Hurh, M. H., & Kim, K. C. (1990).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11), 703-711.
- Kessler, R. C., & Cleary, P. D. (1980). Social cla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463-478.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Canada.
- Kim, U., & Berry, J. W. (1986).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Immigrants in Toronto, Canadian. in L.H. Ekstrand(Ed.).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Lisse: Swets and Zeitlinger.
-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1999).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eoul : Doosan Dong A.
- Laffret, S. C. (1989). Assessment Arab-American Health Care Needs. *Social Science Medicine*, 29(7), 877-883.
- Lee, S. K., Sobal, J., & Frongillo, E. A. (2000). Acculturation and health in Korean Americ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2), 159-173.
- Leininger Madeleine (1978). *Trans 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 Lieber, E., Chin, D., Nihira, K., & Mink, I. T. (2001). Holding On and Letting Go :Identity and Acculturation Among Chinese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3), 247-261.
- Liem, R., Lim, B. A., & Liem, J. H. (2000). Acculturation and Emotion Among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enic Minority Psychology*, 6(1), 13-31.
- Linn, M. W. (1985-1986).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GAR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5(1), 47-59.
- Meadows, L. M., Thurston, W. E., & Melton, C. (2001). Immigrant Women'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2(9), 1451-1458.
- Mehta, P. (1997). The import and export of psychoanalysis: India.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25(3), 455-471.
- Mena, F. J., Padilla, A. M., Maldonado, M. (1987). Acculturative stresse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2), 207-225.
- Muramatsu, N. (2003). County-level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among older Americans. *Health Services Research*, 38(6 Pt 2), 1863-1883.
- Noh, S., & Kaspar, V.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32-238.
- Ritsner, N., Ponizobsky, A., Nechamkin, Y., & Modai, I. (200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Psychological

- Distress Among Immigrants. *Comprehensive Psychiatry*, 42(2), 151-160.
- Rogler, L. H., Cortes, D. E., & Malgady, R. G.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6), 585-597.
- Salant, T., & Lauderdale, D. S. (2003). Measuring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acculturation and health in Asian immigrant populatio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1), 71-90.
- Salgado de Snyder, V. (1986). *Mexican immigrant women: The relationship of ethnic royalty,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to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Satia, J. A., Patterson, R. E., Taylor, V. M., Cheney, C. L., Shiu-Thornton, S., Chitnarong, K., & Kristal, A. R. (2000). Use of Qualitative Methods to Study Diet, Acculturation, and Health in Chinese-American Women,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0(8), 934-940.
- Shen, B. J., & Takeuchi, D. T. (2001). A structural model of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nes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387-418.
- Shin, K. R. (1993).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among Korean American women in New York.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0(5), 415-423.
- Turner, R. J., & Avison, W. R. (2003). Status variations in stress exposur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research on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4), 488-505.
- Williams, D. R. (2002). Racial/ethnic variations in women's health: The social embeddedness of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4), 588-597.
- Wilmoth, J. M., & Chen, P. C. (2003). Immigrant status, living arrangem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58(5), S305- 313.
- Yeh, C., & Inose, M. (2002).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mmigrant students. *Adolescence* 37(145), 69-82.
- Ying, Y. (1988).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Chinese-Americans as measured by the CES-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739-746.
- Yoon, I. J. (2003). The Korean Diaspora. *Journal of Korean Sociology*, 37(4), 3-7.

- Abstract -

Key concept : Acculturative stress,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 Acculturative Stress and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in Korean Immigrants

Shin, Hye Sook\* · Kim, Miyong\*\*

**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in Korean immigrant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154 community-dwelling Korean immigrant living in the US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Acculturative stress (12 items), 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cale(8 item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PC 12.0 Programme for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Duncan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ults:** 1) The average item score fo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USA

acculturative stress was 17.17. The average item score for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was 26.56. 2) Acculturative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 $r=.360$ ,  $p<.01$ ). 3) Acculturative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 $F=2.709$ ,  $p=.047$ ), occupation ( $F=16.202$ ,  $p=.000$ ), perceived income comfort level ( $F=26.666$ ,  $p=.000$ ), and type of residence ( $F=2.672$ ,  $p=.050$ ). The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 $F=7.380$ ,  $p=.000$ ), marital status ( $F=5.354$ ,  $p=.006$ ), perceived income comfort level

( $F=12.738$ ,  $p=.000$ ), and type of residence( $F=4.207$ ,  $p=.007$ ). **Conclusion:** These findings help to clarify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in Korean immigrants. Therefore, the result of study provide clues for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immigra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Hye Sook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 Korea  
Tel: 82-2-961-9143 Fax: 82-2-961-9398  
E-mail: suksh@khu.ac.kr